



이탈리아 선수들이 25일 유로 2012에서 승부차기 끝에 잉글랜드를 꺾고 준결승 진출을 확정지은 뒤 환호하고 있다.

Sports

'삭발투혼' 호랑이 질주 이어갈까

주중 잠실 LG·주말 대전 한화와 원정 6연전
에이스 윤석민 복귀 마운드 기대… 타선 변수

① 프로야구 전망대

머리비운 호랑이들의 질주가 펼쳐질까?

'삭발투혼'에 나선 KIA 타이거즈가 지난 주말 SK 와이번스와의 3연전에서 2승1패를 기록하며 8번의 도전 끝에 위닝 시리즈를 가져왔다.

선두 SK를 상대로 9회 끝내기 승을 거두며 분위기 살리기에 성공한 KIA는 이번주 잠실·대전으로 이어지는 원정길에 오른다. 주중에는 지난 15일 군산에서 4시간20분간의 연장 혈투를 벌였던 LG를 만나고, 주말에는 최하위 한화를 상대한다.

마운드의 기상도는 '맑음', 타선은 '흐림'이다.

마운드에는 악재와 환경이 겹쳤다. 신인 박지훈을 중심으로 어렵게 꾸려왔던 불펜에

서 마무리 한기주가 엄지손가락 염증으로 휴업에 들어갔다.

마무리가 빠졌지만 대신 에이스가 돌아온다. 팔꿈치가 좋지 않아 재활군에 머물었던 윤석민이 LG전 선발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믿을 맨 박지훈의 체력저하가 눈에 띄지만 달라진 박경태의 활약이 돋보인다. 2군에서 이를 악물었던 박경태는 1군 복귀 후 위력적인 공을 뿐이며 한기주의 공백에서 필승조로 낙점을 받았다. 노련한 최희남도 뒷문 수성의 임무를 맡는다.

소사·안산서 두 외국인 투수의 안정세 속에 에이스의 복귀, 불펜 이들들의 활약이 더해지면서 마운드는 '맑음'이다. 여기에 LG가 선발진 변화속에 '자제소동'으로 마무리 봉중근까지 이탈하면서 마운드가 흔들리고 있다.

중심이 잡히지 않은 타선은 '흐림'이다.

헬스트링 부상으로 출발부터 빠져가린 이범호가 좀처럼 파워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4번 타자 최희섭도 체력 저하와 함께 공격 2선으로 물러나 있다. 나지완도 최근 6경기에서 14타수 2안타로 0.143의 타율을 기록하는데 그치는 등 한방 있는 타자들의 부진이 아쉽다.

24일에도 9회말 2-1의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SK 수비수의 끌내기 실책에 힘입은 결과였다.

KIA는 7회와 8회에 찾아온 2사 만루, 1사 만루에서 점수를 뽑는데 실패하며 자력으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적생 조영훈의 움직임이 타선의 변수다.

내부유성을 강조했던 선동열 감독은 트레이드 카드를 끄내면서 야수진 보강과 타선 분위기 전환을 노리고 있다. 고·수·에서 힘 빠진 최희섭을 대신할 조영훈이 타선 변화의 중심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26일 잠실 마운드에서는 KIA의 서재웅과 LG 좌완 신인 최성훈의 노련미와 패기의 맞대결이 벌어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강심장' 피를로, 잉글랜드 울리다



승부차기서 과감한 칩슛 승부 갈라

이탈리아 4-2 승리 견인 4강 진출

축구 역사상 가장 경악스런 PK는 유로 1976 결승에서 나왔다. 체코 블趸의 주역 파넨카는 서독과의 결승전 승부차기에서 마지막 키커로 나섰다. 성공시키면 우승의 절체 절명의 순간이었다. 페널티킥이란 강하고 빠르게 골문 구석으로 차 넣는 게 정석. 그러나 파넨카는 몸을 날린 골키퍼 뒤, 골문 중앙으로 유유히 날아가는 '칩슛'으로 골을 성공시켰다. 상식을 깨 파격의 강렬함과 곡선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진 멋진 골이었다. 그 후 이 킥을 '파넨카킥'이라 부른다.

프랑스 지단이 2006년 독일월드컵 결승전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PK를 얻어 칩슛으로 골을 넣었고 이탈리아 세리아A에선 토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판 페르시가 종종 이 킥을 성공시켰다.

25일(한국시간) 벌어진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유로 2012 8강전은 120분간의 혈투를 벌이고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양 팀 합쳐

44개의 슈팅(이탈리아 35, 잉글랜드 9)을 쏜 아部署지만 스코어는 0-0. 경기 전 많은 사람들은 예상했듯이 양 팀은 운명의 승부차기기에 뛰어들었다.

양 팀 첫 번째 키커인 발로렐리와 제라드가 깔끔하게 성공시켰다. 이탈리아 2번째 키커 몬티리오가 실축하고 잉글랜드는 루니가 성공스코어 1-2. 이탈리아 세 번째 키커 피를로는 오른쪽 방향으로 몸을 날린 골키퍼 조 하트 뒤로 유유히 날아가는 '파넨카킥'으로 골을 성공시켰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오직 강심장의 선수만이 할 수 있는 킥이었다.

피를로는 칩슛으로 허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잉글랜드의 세 번째 키커 애슬리 영의 슈팅은 크로스바를 맞고 텅 끊겨나았고 네 번째 키커 애슬리 퀸의 슈팅은 부푼 손에 잡혔다. 이탈리아는 오는 29일 오전 3시 45분에 독일과 결승 진출을 두고 라이벌전을 펼친다. 독일보다 이를 덜 쉬고 연장전까지 120분을 뛴 이탈리아로서는 체력 회복이 관건이다.

는 메이저대회 승부차기 1승 6패의 징크스에 빠졌다.

피를로는 승부차기뿐만 아니라 경기 내내 이탈리아 중원을 조율하고 환상적인 패스로 여러 차례 드롭기회를 만들며 최고의 활약을 펼쳐 이날 '냅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되었다.

피를로는 경기 뒤 인터뷰에서 "조 하트 골키퍼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기다렸다가 뛰었다. 이런 무대에서는 칩슛이 더 쉽다. 잉글랜드에 압박감을 주려는 의도도 있었다. 실제로 내 다음에 애슬리 영이 실축했다"며 기뻐했다.

적장인 잉글랜드의 호지슨 감독마저 "피를로의 칩슛은 연습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감탄했고 이탈리아 프란델리 감독도 "피를로야 말로 진정한 스타플레이어이다. 어떻게 차여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렇게 찼다"라며 팀의 기동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탈리아는 오는 29일 오전 3시 45분에 독일과 결승 진출을 두고 라이벌전을 펼친다. 독일보다 이를 덜 쉬고 연장전까지 120분을 뛴 이탈리아로서는 체력 회복이 관건이다.

/유제관기자 jkyou@kwangju.co.kr

광주여대서 대학궁사 최강 가린다

26~29일 한국대학양궁선수권

광주여대에서 대학양궁 최강자를 가린다.

제15회 한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가 26일 광주여대 전연잔디운동장에서 개막해 29일까지 4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대회는 리커브부문과 컵파운드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남녀 개인, 단체전에서 8명의 금메달 주인공이 탄생한다.

린던 올림픽 금메달을 겨냥하고 있는 신궁 기보배를 배출한 광주여대 양궁팀을 비롯해 호남대, 순천대, 한국체대 등 18개 대학교에서 100여명의 궁사가 참가해 경쟁을 벌인다.

한편 한국대학양궁연맹이 조직된 이후 이어져 오고 있는 한국대학양궁선수권은 우수 선수들의 등용문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으며, 광주여대는 지난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대회를 개최한다.

신궁 기보배를 비롯한 광주여대 양궁팀을 비롯해 호남대, 순천대, 한국체대 등 18개 대학교에서 100여명의 궁사가 참가해 경쟁을 벌인다.

제15회 한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가 26일 광주여대 전연잔디운동장에서 개막해 29일까지 4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한편 한국대학양궁연맹이 조직된 이후 이어져 오고 있는 한국대학양궁선수권은 우수 선수들의 등용문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으며, 광주여대는 지난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대회를 개최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올스타전 보이콧 결의

프로야구선수협회

프로야구선수협회가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10구단) 창단 유보 결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올스타전을 보이콧하기로 결의했다.

선수협회는 25일 서울을 가든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KBO 이사회에서 10구단 창단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7월21일 예정된 올스타전 참가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9개 구단 이사와 선수 대표 40여 명이 참석했다. 내년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참가 여부에 대해 선수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산행 안내

해외 및 해상은 개지가 불가합니다.(유지민 기능)

*현재 상황은 기준 사항입니다. 7/30일 이후는 즐거울

6월27일(수)

▲광주청룡산국립공원 전남 여수 금오도(매봉 산) 6월27일(수) 7시 2시 운동장 토대로 출발 10분 구자하철역 3분 출발구 ~ 35분 광주역 ~ 45분 분교공원~ 55분 동광주웨딩프라자 *

7월1일(일)

▲빛고을무지개산악회 함양 황석산 7월1일(일) 7시 10분 출발 ~ 20분 학동, 증진사당 T.011-625-5230, 010-7750-7210

7월10일(토)

▲빛고을무지개산악회 경남 거창 황석산 7월10일(토) 7시 20분 광주여대 출발 10분 구자하철역 3분 출발구 ~ 35분 광주역 ~ 45분 분교공원~ 55분 동광주웨딩프라자 *

7월30일(토)

▲광주요도산악회 피산, 악취봉~칠보산 6월30일(토) 6시 10분 출발 ~ 20분 운동장 토대로 출발 10분 문예회관후문 30분 동광주국립기념관 *다음카페 : 광주청룡산국립공원

7월27일(수)

▲빛고을무지개산악회 경남 함양 황석산 7월27일(수) 7시 20분 운동장 토대로 출발 10분 구자하철역 3분 출발구 ~ 35분 광주역 ~ 45분 분교공원~ 55분 동광주웨딩프라자 *

7월30일(토)

▲빛고을무지개산악회 경남 거창 황석산 7월30일(토) 7시 20분 운동장 토대로 출발 10분 구자하철역 3분 출발구 ~ 35분 광주역 ~ 45분 분교공원~ 55분 동광주웨딩프라자 *

7월10일(토)

▲빛고을무지개산악회 경남 거창 황석산 7월10일(토) 7시 20분 운동장 토대로 출발 10분 구자하철역 3분 출발구 ~ 35분 광주역 ~ 45분 분교공원~ 55분 동광주웨딩프라자 *

7월27일(수)

▲빛고을무지개산악회 경남 거창 황석산 7월27일(수) 7시 20분 운동장 토대로 출발 10분 구자하철역 3분 출발구 ~ 35분 광주역 ~ 45분 분교공원~ 55분 동광주웨딩프라자 *

7월30일(토)

▲빛고을무지개산악회 경남 거창 황석산 7월30일(토) 7시 20분 운동장 토대로 출발 10분 구자하철역 3분 출발구 ~ 35분 광주역 ~ 45분 분교공원~ 55분 동광주웨딩프라자 *

7월10일(토)

▲빛고을무지개산악회 경남 거창 황석산 7월10일(토) 7시 20분 운동장 토대로 출발 10분 구자하철역 3분 출발구 ~ 35분 광주역 ~ 45분 분교공원~ 55분 동광주웨딩프라자 *

7월27일(수)

▲빛고을무지개산악회 경남 거창 황석산 7월27일(수) 7시 20분 운동장 토대로 출발 10분 구자하철역 3분 출발구 ~ 35분 광주역 ~ 45분 분교공원~ 55분 동광주웨딩프라자 *

7월30일(토)

▲빛고을무지개산악회 경남 거창 황석산 7월30일(토) 7시 20분 운동장 토대로 출발 10분 구자하철역 3분 출발구 ~ 35분 광주역 ~ 45분 분교공원~ 55분 동광주웨딩프라자 *

7월10일(토)

▲빛고을무지개산악회 경남 거창 황석산 7월10일(토) 7시 20분 운동장 토대로 출발 10분 구자하철역 3분 출발구 ~ 35분 광주역 ~ 45분 분교공원~ 55분 동광주웨딩프라자 *

7월27일(수)

▲빛고을무지개산악회 경남 거창 황석산 7월27일(수) 7시 20분 운동장 토대로 출발 10분 구자하철역 3분 출발구 ~ 35분 광주역 ~ 45분 분교공원~ 55분 동광주웨딩프라자 *

7월30일(토)

▲빛고을무지개산악회 경남 거창 황석산 7월30일(토) 7시 20분 운동장 토대로 출발 10분 구자하철역 3분 출발구 ~ 35분 광주역 ~ 45분 분교공원~ 55분 동광주웨딩프라자 *

7월10일(토)

▲빛고을무지개산악회 경남 거창 황석산 7월10일(토